



Publication	Today Energy
Frequency	Online (daily) / Newspaper (weekly)
Headline	AspenTech Provides Optimized Planning and Scheduling Solution
Link	http://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77762
Date	Nov 30, 2012

Summary:

In an interview with AspenTech's OJ Kwon, Senior Principal Business Consultant, Kwo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product efficiency and highlighted the need to stay competitive. He added that the key solution for petroleum and petrochemical companies is to adopt optimized systems that enables businesses to make faster and better decisions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In this respect, AspenTech helps companies decide in a seamless and agile manner.


To combat industry volatility, AspenTech's Petroleum and Petrochemical Planning & Scheduling software helps companies optimize business processes across the supply chain. Kwon added that companies can predict scenarios more accurately to maximize their margins with Aspen PIMS, which has a new crude assay management functionality allowing planners to add, modify and recut assays from within the solution. Aspen Petroleum Scheduler also generates the most flexible production schedule to optimize a production plan with Aspen PIMS and Aspen Refinery Multi-Blend Optimizer. With an integrated aspenONE solution, process manufacturers can implement best practice for optimizing their engineering,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 operations. This helps to better increase capacity, improve margins, reduce costs and become more energy efficient.

Kwon highlighted that Aspen PIMS has been adopted by more than 70% petroleum and petrochemical companies to achieve worldclass optimization best practice. He concluded that with AspenTech's solution, customers maximize profitability by improving crude purchase decisions.

당상 깨어있는 신문
투데이에너지

[인터뷰] 권오정 아스펜테크 이사
계획부터 실행까지 '한 몸처럼'
"생산계획 스케줄링 최적 솔루션 제공"

2012년 11월 30일 (금) 13:24:34 [박동위 기자 dwpark@tenews.kr]



▲ 권오정 아스펜테크 이사.

[투데이에너지 박동위 기자]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효율을 높이는 것만이 해답입니다"

권오정 아스펜테크 기술담당 이사는 정유 및 석유화학산업에서 생산효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스펜테크가 그 길의 안내자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글로벌 환경이 급변하면서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에서는 '변동'없는 의사결정의 효율화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유 및 석유화학업계는 원료(원유·나프타) 및 최종 제품의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고 원료나 제품 거래 시 배송, 공장 운영 과정에서 사전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난다.

아스펜테크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완벽한 '생산계획 및 스케줄링(P&S: Planning&Scheduling)솔루션'을 제공한다.

권오정 이사는 "정유회사들은 새로운 원료의 구매, 배송일정 연기, 공장 운전 불가 등의 상황들을 만나게 됐을 때 공급망 전반의 영향도를 감안한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라며 "아스펜테크의 P&S솔루션은 생산계획과 실제업무가 일치할 수 있도록 석유공급망을 체계적으로 통합해 정유회사들이 정확도와 생산성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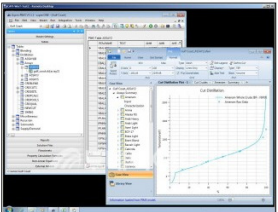
이어 그는 "원유조성 관리(Assay Management) 기능이 포함된 아스펜팜스를 통해 원유 성상을 더하거나 수정 또는 리컷(recut)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시나리오 예측하고 원유 구매 결정력 및 이익 중대를 최적화 할 수 있다"라며 "이같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동시에 생산계획담당자들이 다음 단계에서 어떤 업무를 해야 하는지 미리 인지하도록 해 작업 시간이 보다 단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권 이사는 아스펜팜스와 함께 아스펜페트롤리엄스케줄러(APS: Aspen Petroleum Scheduler)는 아스펜팜스로부터 얻어진 최적화된 생산계획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 스케줄을 제공하며 아스펜테크 리파이너리 멀티-블렌드 옵티마이저(MBO: Aspen Refinery Multi-Blend Optimizer)는 최적화된 제품 혼합의 스케줄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스펜테크(AspenTech)는 에너지, 석유, 화학, 제약 등의 산업에 제조 공정을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해온 선도 기업으로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지난 1981년 설립돼 현재 27개국에서 1,300여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다.

기업은 아스펜테크의 통합솔루션 제품인 아스펜원(Aspen ONE)을 통해 엔지니어링, 제조 및 공급망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생산 능력을 높이고 이윤을 높이는 동시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권 이사는 "특히 아스펜팜스는 전세계 70% 이상의 정유와 석유화학회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생산계획 솔루션"이라며 "글로벌한 표준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도입하고자 하거나 업무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의 활동수준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하는 경우, 최상의 소프트웨어 기능을 도입하고자 하는 고객들에게 선호도가 높아 많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아스펜팜스 실행 캡처.

마지막으로 권 이사는 "아스펜테크의 솔루션의 핵심은 빠른 원유구매의 의사결정과 수익성 향상"이라며 "기업에서는 이러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업무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성 극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